

A woman with long, wavy brown hair is shown in profile, playing an acoustic guitar. She is wearing a black jacket with white geometric patterns over a black and white patterned top. Her eyes are closed, and she has a serene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dark, and the lighting is focused on her and the guitar. The name 'Gtonne Choi' is written in white, brush-stroke style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Gtonne  
Choi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은 2010년 10월 첫 EP <36.5°C>로 데뷔했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고, 대학 시절엔 하드코어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첫 앨범 발표 이후 2011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루키'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어우러진 특별한 목소리,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성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안겨주었다.

2015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포크앨범, 올해의 포크음악' 등 3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정규 앨범 <I WAS, I AM, I WILL>과 3장의 미니 앨범 <36.5°C, Good Morning, REAL>을 발표하며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최고은은 고유의 목소리와 호흡은 지켜내면서도 포크, 월드뮤직, 재즈, 록 등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며 음악적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지산 벨리 록 페스티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등 국내 주요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관객들과 언론으로부터 '포크의 나윤선'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2012년 7주간의 장기공연 '호흡의 원근법'을 통해서는 매주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선보이며 폭넓은 감성과 실력을 인정 받았다.

최고은은 해외 활동 역시 활발히 하는 뮤지션들 중 하나로, 2012년에는 아시아 뮤지션 최초로 세계 각국의 뮤지션을 발굴하는 독일 음악네트워크 송스 앤 위스퍼스(Songs & Whispers)의 초청을 받아 두 달 간의 유럽 투어를 펼치며 세계 무대로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2013년 후지 TV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시아 버서스(Asia Versus)에서는 '청중들의 취향과 마음을 움직이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는 평과 함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년과 2015년 6월에는 세계 최대의 음악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Glastonbury Festival)에 2회 연속으로 초청 받으며 다시 한 번 그녀의 음악의 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010.10 EP <36.5℃> (2013.10 재발매)
- 2011.11 EP <Good Morning>
- 2012.12 싱글 <My Christmas Is You>
- 2013.06 EP <REAL - Record Everywhere About Life>
- 2014.11 첫 정규앨범 <I was, I am, I will>



Participations

- 2015.03 <한국 인디 20주년 기념앨범>, "너에게"
- 2015.04 <2015 제비다방 컴필레이션>, "Roza"
- 2015.10 전통예술 해외통합홍보물 <Into the Light, Music of Korea VI>, "뱃노래 (Sailor's Song)"



## 주요 활동



2015.06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2년 연속 공식 초청
2015.05	서울재즈페스티벌 참여 (2012년 & 2013년 참여)
2015.02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3개 부문 노미네이트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포크 음악', '올해의 포크 음반'
2014.06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공식 초청
2014.04	KT&G 상상마당 '씨라운드' 아티스트 선정
2013.12	일본 후지TV 글로벌 오디션 '아시아 버서스 (Asia Versus)' 최종 우승
2012.12 -2013.01	독일 음악네트워크 '송스 앤 위스퍼스(Songs&Whispers)' 숨은 아티스트 선정, 2개월 간 유럽 투어 공연
2012.07	KT 올레뮤직 '7월의 아티스트' 선정
2012.05 -2012.06	KT&G 상상마당 웬즈데이 프로젝트 '호흡의 원근법' 장기 공연
2011.06	EBS <스페이스 공감> '6월의 헬로루키' 선정

그외 다수 국내 음악 페스티벌(자라섬재즈페스티벌, 펜타포트락페스티벌, 지산락페스티벌 등) 및 방송 참여

2010년 첫 미니음반을 냈을 때 안정적인 가창력과 호흡법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듬해 나온 미니앨범에선 그 실험정신에 박수 쳤다. 작년 북유럽을 돌며 녹음한 라이브는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드디어 포장을 벗은 이 앨범은 그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포크의 나윤선’이라고 할 최고은은 장필순 이후 가사(假死) 상태에 빠져있던 이 장르에 심장 충격을 가해 벌떡 일으킨다. 우리는 12월이 다 돼서야 ‘올해의 앨범’을 만났다.

-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

한 장르로 분류할 수 없는 앨범이지만, 이 모든 노래는 최고은이란 대형 깔때기 속에 녹아든다. 유연하면서도 한 칼이 있는 그의 목소리는 어떤 장르도 막힘없이 불러낸다. 그의 보컬은 종종 재즈 가수 나윤선과 비교되곤 한다.

- 중앙일보 김효은 기자

그녀는 인디 신에서 주목받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들과는 다르게 팬시한 감성을 내세우거나 한 두 장르에 자신의 음악을 한정하지 않았다. 깊고 섬세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흘러다녔다. 음악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터트리면서도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리감과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그녀는 그래서 언제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새로움과 신비로움, 안정감이 있는 뮤지션이다.

- 서정민갑(음악평론가)

최고은의 목소리엔 여행자의 냄새가 난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 지금 이곳을 다시 비우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자의 눈에선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여행자의 눈동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경험은 분명 지도에는 표기할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경험이다.

- 김경주(시인, 극작가)





“저에게 음악이란 기초생활필수품이며 패스포트입니다. 저의 곡은 저의 그림자를 따라 만들어 진 곡입니다. 흐름은 끊기지 않게, 오래도록 연주되는 삶을 꿈꿔 봅니다. 이따금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서, 혹은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완성된 곡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 곡들의 흐름은 공격적이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보컬 음색이 부드럽고, 곡을 이끌어가는 목소리의 질감이 자유분방합니다. 듣다 보면 안전한 공간 속에 있음을 아실 겁니다.”

최고은



## Contact

H. <http://iamgonne.com>

E. [iamgonne@gmail.com](mailto:iamgonne@gmail.com)

[gilraen@naver.com](mailto:gilraen@naver.com) (매니저 이인재)

[youtube.com/user/iamgonne](https://www.youtube.com/user/iamgonne)

[facebook.com/iamgonneofficial](https://www.facebook.com/iamgonneofficial)

[twitter.com/iamgonne](https://twitter.com/iamgonne)